

화합 동정

● 어선용품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협회부설 방재시험소(소장 이유훈)는 수산청으로부터 어선용품중 방화와 관련된 분말소화기, 분말소화제에 대한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앞으로 이 2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수산청으로부터 받는 형식승인 이전에 통과해야하는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기둥구조 내화성능 시험기관 지정

협회부설 방재시험소는 지난 88년 벽, 보, 바닥의 내화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이어 기둥구조에 대한 내화성능시험까지 추가 지정받았다.

이로써 방재시험소는 방내화 모든 구조에 대한 내화성능시험결과에 대해 국가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

● 안전점검 5만건 돌파

협회 안전점검건수가 지난 11월 15일 드디어 5만건을 돌파했다. 73년 서울, 부산, 대구의 특수 건물 1천 7백 76건을 대상으로 시작된 안전점검은 75년에 1만 2천여건, 87년도엔 3만여건, 89년에 4만 5천여건을 기록했다. 협회의 90회계년도(91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목표건수는 5만 3천 7백건에 달한다.

● 제 1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협회가 주최하고 내무부가 후원하는 제 1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6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상 1명과 본상 15명에 대한 시상이었다.

● 90년 방재세미나 개최

90년도 방재세미나가 지난 11월 28일 협회 강당에서 「지하공간과 고층빌딩의 방재대책」을 주제로 관계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건설성 田中孝義박사와 김상욱 이광엔지니어링대표, 김광일 선임연구원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 국민학교에 홍보영화 배포

협회는 드라마식 불조심홍보영화 「혜미의 일기」를 VTR 테이프 로 복사해 전국 7대도시내에 소재한 전국민학교에 배포했다.

그간 협회가 제작한 16편의 홍보영화중 「혜미의 일기」는 관람반응도 좋았으며, 특히 주인공이 국민학생이라 쉽게 공감대를 형성, 불조심 조기교육에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

소방계 동정

● 소방의 날 표창

내무부는 지난 11월 1일 상오 전국 시·도·군별로 소방의 날 행사를 일제히 열어 겨울철을 앞두고 불조심 생활화를 결의하는 한편 소방행정 발전에 공이 많은 8백 29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했다.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녹조근정훈장 : 이명용(내무부 소방국 안전담당, 소방정), 이용만(서울 동대문소방서장, 황영철(경남 마산소방서장)

△ 근정포장 : 함삼갑(서울소방본부 감찰계장), 이회균(부산 동래소방서 소방계장), 김기해(경북 경산소방서장)

△ 국민포장 : 김종성(서울 성북의용소방대장), 송정조(경남 울주 강동의용소방대장)

한편 서울특별시 등 각 시·도·군별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불조심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사회단체대표,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직장자위소방대원, 소방관계인 등이 참석하여 불조심대회에 이어 특별승진과 유공소방관 및 소방관계인을 포상하고 불조심 결의대회를 가졌다.

● 제 5차 소방장비 보강

내무부는 인구 및 산업시설의 증가와 신도시 및 대단위 공업단

보험계 동정

지 조성 등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95년까지 소방차 2천40대 확보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차종별로는 노후차량 교체를 포함하여 사다리차 1백29대, 화학차 1백10대, 배연차 35대, 조명차 43대, 펌프차 1천46대, 소방정 7척, 기타의 구급차, 순찰차, 진단차 등 2백60대 등이다.

한편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제4차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 중 1천7백67대의 소방차량을 구입하거나 16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방 안전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엄대현)는 지난 10월6일 협회내 회의실에서 창립 제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유관기관 및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유공직원을 표창했다.

● 소방공제회관 개관

대한소방공제회(회장 안병찬)는 지난 9월25일 대한소방공제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대지면적 4백5평에 지하3층 지상10층, 연면적 2천7백44평의 이 건물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 동양사 창립 68주년

동양화재해상보험(주)(사장 주인기)는 지난 10월 본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층 강당에서 창립 6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선 장기근속자 및 모범직원 142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 현대사 창립35주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사장 정몽윤)는 지난 10월17일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갖고 50명의 우수 모집인과 근속임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 보험법 연구회 발족

급속한 변화를 겪고있는 보험경제여건에서 보험의 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법 연구회」발기모임이 지난달 29일 보험신보사 회의실에서 있었다.

회상에는 양승규 서울대학교수가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보험의 법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 호우 보험피해

지난 9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보험피해액은 3백6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0~12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보험계약자들의 피

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4백35건에 총 3백59억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같은 보험피해액은 89년 태풍 주디호(1백92억원) 및 87년 셀마호(1백18억원) 당시의 보험피해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보험피해액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집계한 수해피해 총액 4천2백29억원의 8.5%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업과 개인 등의 재해보험대책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 보험사상

최대의 물적손해

지난 10월21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내 대우전자(주)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주방기와 회전기 생산라인 등 2개동 5천여평의 내부와 생산시설을 태우고 6시간 20분만에 진화되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3백70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단일 증권상의 물적손해로는 사상 최대의 보험사고이다.

화보험회를 비롯한 대한·국제 등 관련 보험사들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손해액중 가지급보험금 1백13억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보험금을 추가지급키로 했다. ☹